

12월 6일 불불봉안 토요일법회 식순

< 1부 > 불불, 점안기도 (법요집 참조)

< 2부 > 불불법회

- 주 제 : 건학 108돌의 만불봉안 佛事
- 법 사 : 정각원장 법타스님
- ♪ 오늘의 찬불가 “보현행원 법요집 p.53

이달의 초청강좌

날 짜	법 회 주 제	법 사
12.13(토)	생활속의 금강경	김원수 (사) 바른법연구원장
12.20(토)	생활법문	원장스님
12.27(토)	담마토크	동효스님 해남 상불사 주지스님

◎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 매주(토) 법회 후 13:30~

구 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요경스님	법학관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수행반	달라이라마 행복론	마가스님	만해관 좌선실
한시반	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다정산방

신도회 입출금 내역 (11/1~11/30)

내 용	수 입	지 출	잔 액
이월금			9,078,874
신도회비	740,000		
공양미 판매	1,615,000		
불단 과일		155,000	
불단 떡		85,000	
쌀 구입		450,000	
음악회 티켓	500,000		
음악회 보시금		1,000,000	
기타		324,000	
총 합계	2,855,000	2,014,000	9,919,874

(사)자비명상 마음치유협회 겨울방학특강

5인 5색 5주 명사특강

2015 새해, 알찬 겨울방학 특강으로 시작하세요!

과 목	강 사
마음으로 맛보는 소물리에	조기형(맛교육 전문가)
위빠사나 마음관찰	김열권(위빠사나 지도자)
음악을 통한 마음치유	김승택(조계사 지휘자)
통합예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김연희(예술심리치료사)
명상상담과 Mindfulness	이 운(마인드힐링 교수)

문의 : (사)자비명상 02) 3666-0260
평생교육원 02) 2260-3260

**금일 공양은
경영관 그루터기 식당입니다**

건학108주년기념관 시주 동참 권선

동국대학교가 건학 108주년기념관 건립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 정각원사무실 ☎ 2260-3016~20

**동국인의 마음산책
문자서비스 후원보시**



향기로운 부처님 법문을 전해드리는 『동국인의 마음산책』에 후원보시 해주실 불자님을 기다립니다.

(*현재 주3회, 1,715명 발송 중)

◦ 문의 ☎ 2260-3016~20

보시동참

12월 1일 불전 공양

₩ 1,447,000원

법타스님 마가스님 지담스님, 강은희 강현우, 고목훈, 고혁완, 권혁채, 김광한, 김동상, 김동연, 김신애, 김태욱, 남창강, 박사임, 박성진, 서기원, 안대준, 안희철, 원서준, 윤호문, 이기형, 이민기, 이봉자, 이성부, 이수준, 이옥희, 이인주, 이형식, 조분옥, 주해선, 주호빈, 주호성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1,760,000원

(법사비, 토요일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불사 동참자

묵우스님(백천사), 박용근(이화불교사), 박은식, 불교학부모회(14학번), 이금정, 정각원신도회, 정애영

인등 보시

신문균, 이영숙, 전재윤

학인스님 김치 보시

☞ 최순분(재수)

공양 보시

❖ 불단 떡 · 과일 · 대중공양 : 대외협력본부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은 큰 복전을 짓는 것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365일 108배 릴레이정진
동참 연인원은 현재 5895명 입니다.**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 장한 엘리트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8(2014)년 12월 6일

제270호(週刊)



깨달은 사람은 온 천지를 가슴 속에 받아들여도 그 가슴 속은 늘 여유가 있다.
그리고 모든 존재를 그 마음속에 비춰보아도 그 정신은 언제나 선심의 상태에 있다.

「조론」



불기2558년 16차 【 대각전 원불 봉안법회 안내 】



봉안현황 : 총 6,745佛(2558년-585佛)

● 금일, 건학 108돌을 맞아 학교발전과 소원성취의 염원을 담은 봉불법회에 동참하신 불자님께 부처님 가피가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만불 봉안법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58. 12. 6(토) 10시~12시

* 장 소 : 대각전(이해랑예술극장 2층)

* 봉안신청 : 願佛(1佛) 100만원이상 (연중)

* 문 의 : 정 각 원 02)2260-3016~20
대외협력본부 02)2260-8992,3

<제1부> 봉불 헌공과 축원(10:00 ~ 11:00)

- 점안의식
- 동참신도 축원

<제2부> 봉불 봉축 토요일법회(11:00 ~ 12:00)

- 삼귀의
- 경과보고 (대외협력본부장님)
- 인사말씀 (정각원 신도회장님)
- 봉축사 (총장님)
- 청법가
- 법 문 (정각원장 법타스님)
- 음성공양(성악가 정행스님 / 정각원합창단)
- 정근보시
- 사홍서원
- 점심공양 : 그루터기식당(경영관 지하1층)

건학 108주년기념 동국대학교 박물관 특별전시

刻卽佛心 108번뇌로부터 해탈

각각불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변상판화**를 주제로 전시가 진행중입니다. 본 전시의 대표작 「세이이지(西來寺) 묘법연화경판본」은 주지스님의 특별 배려로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최초 공개되는 유물입니다. 3

신도님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일시 : ~12. 19(금)까지 평일관람 10:00 ~ 16:00

● 장소 : 동국대학교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
동국대학교 박물관 ☎ 2260-3722

❄ 첫 눈 내린 정각원~



● 정각원 법당에 올겨울 첫눈이 포근히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절 정각원에서 추운 날씨도 이겨내는 용맹 정진의 불자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_0_

건축 108들의 만불 봉안 佛事

2558. 12. 6.(토) 동국대 대각전 만불봉안
정각원장 법타스님

1. 佛事란?

불사의 바른 의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모든 행위와 깨달음을 얻게 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수행 장소인 법당 건립은 물론 인격 완성의 표준 인물인 부처님을 상을 조성해 모시는 일 등 모든 것이 깨달음을 전해 듣고 보는 이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일.

“부처님의 깨달음을 열어 중생들에게 보여서, 중생들이 깨달음에 들어 부처님이 되게 하는 것이다.”
(佛之知見開示悟入) [법화경]

“아난이여, 어떤 불토는 부처님 광명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여러 보살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부처님의 화현한 사람으로 불사를 짓기도 한다. 혹은 32상과 80종호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혹은 부처님 몸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고, 혹은 허공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거늘, 혹은 음성과 말과 글로 불사를 짓기도 하며, 어떤 청정한 불국토에서는 고요하고 말이 없어 말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알음도 없고 지음도 없고 하는 것도 없음으로 불사를 짓기도 하나니, 아난아, 이와 같이 부처님의 위와 동작과 모든 하시는 바가 불사 아닌 것이 없느니라.” [유마경 보살행품]

“깨달음의 경지에서 실천한 모든 일 뿐만 아니라 시방법계의 토지, 초목 장벽 등 모든 존재 자체가 불사다” [정법안장, (日)도겐스님]

2. 作福(복을 짓는 불사)

복을 잘 짓는 첫째 방법은 불사를 잘 하는 것. 불사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모든 일이다. 《범망경》에 수행하고 정진하는 승방을 짓는 불사, 중생을 제도할 포교공간을 만드는 불사, 포교활동을 하는 불사, 교육하는 불사 등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합된 모든 일. 그래서 불사에 동참함을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이라 함.

“부처님 모습 그리되 갖추신 모든 복상 아름답게 나타내면 자기가 그리거나 남을 시켜 그리거나 모두가 불도 성취했고, 어린 아이 장난으로 풀 · 나무 · 붓 · 손가락 · 손톱으로 부처님 모습 그럴 지라도 이런 사람 점차로 공덕 쌓아 고통 뽑아 주겠다는 큰마음 갖춘 후 모두 불도 성취해 보살만을 교화하고 무량 중생 구제했다.” [법화경 방편품]

3. 불상의 기원

◦ 增一阿含經28이나 止觀輔行1 등의 경전상의 기록 : 석가 재세시에 코삼비국(橋賞彌國)의 우전왕(優填王)과 고살라국(拘隆羅國)의 파사닉왕(波斯匿王)이 각기 栴檀木과 紫磨金을 사용하여 불상을 만들었음.(昆首羯磨化人造佛像)

◦ 불멸 후 500여 년 간은 불상이 조성되지 않았고 예배 대상은 탑 · 보리수 · 金剛寶座 등의 상징적인 대용물이었다고 함. 불상 출현 이전의 이 시기를 無佛像時代라 함.

◦ 불상의 발상지는 간다라 지방이라는 설과 미투라 지방설의 논쟁이 있으나 최근에는 간다라와 미투라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점차 전파되었다는 설이 유력.

4. 만불(萬佛)봉안의 의미

반드시 일만 불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부처님을 통틀어서 모신다는 불사. 삼국유사 권3 탑상(塔像)4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조에 신라 淨神王의 태자 보천(寶川)과 효명(孝明)이 오대산 수행 중 오봉에 차례로 예배하니 관음, 지장, 대세지, 대아라한 문수보살 등 5만 진신이 나타나 일일이 예배. 매일 새벽 인시(寅時)에 문수대성이 진여원에 이르러 1만 불두와 1만 등불모양을 비롯한 36개의 형상으로 나타남.

5. 부처님 조성 봉안 공덕

“살아서 눈이 밝고 죽어서 천안을 얻으리라. 흰 동자와 검은 동자가 분명한 것은 붓다의 형상을 만든 공덕이니라. 몸은 항상 구족(具足)하고 마음 또한 미혹하지 않아 남보다 뛰어난 힘 얻으니 붓다의 형상을 만든 사람이니라.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 하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나니 붓다의 형상을 만든 복이니라.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그 이름은 온 세상에 두루 퍼지리니 붓다의 형상을 만든 복이니라.” [증일아함경 제28 <2-706상 - 708상>]

6. 영원하신 부처님

“부처님께서서는 지금부터 이천 오백여 년 전에 처음으로 성불하신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세월전에 성불하셨지만 중생들을 제도하시려는 방편으로 카필라성에서 태어나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또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것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 부처님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신다.” [법화경 방편품]

부처님이 이 곳 법당에 모신 불상으로만 계신다거나, 이천오백 여 년 전에 입멸하시어 다른 종교인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지금 죽고 없다면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어 영원히 계시며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분입니다.

진묵겁전조성불(塵墨劫前早成佛) 진묵 겁 전에 일찍이 성불하였으나
위도중생현세간(爲度衆生現世間)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셨도다.
외외덕상월륜만(巍巍德相月輪滿) 외외한 덕상 보름달 같은 모습이며,
어삼계중작도사(於三界中作導師) 3계 가운데서 도사가 되셨도다.

불시보변시방중(佛身普遍十方中) 부처님 몸 시방에 가득 차,
삼세여래일체동(三世如來一體同) 삼세 여래가 똑같네.
광대원운항부진(廣大願雲恒不盡) 넓고 큰 원 끝이 없고,
왕약각해묘란궁(汪洋覺海渺難窮) 깨달은 바다 헤아릴 수 없도다.

7. 속 제

『내 들으니 <땅으로 인하여 넘어진 사람은 땅으로 일어나야한다>하였다. 그러므로 땅을 떠나 일어나려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한 마음을 미(迷)하여 가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이는 중생이요, 한마음을 깨달아 가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이는 부처다. 미함과 깨달음은 다르지만 요컨대 모두 한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마음을 떠나 부처가 되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恭聞人因地而倒者 因地而起 離地求起 無有是處也 迷一心而起無邊煩惱者 衆生也 悟一心而起無邊妙用者 諸佛也 迷悟雖殊 而要由一心則離心求佛者 亦無有是處也